

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, 어떤 섬네일에 낯익은 분필이 보였다.



사진 출처

교생 실습 끝나고 시간 되는 교생들끼리 글램핑을 다녀왔다. 그때 함께 갔던 교생 한 분이 유명하고 가장 좋은 분필이라며 하교로모 분필을 선물해 주셨다. 받아놓고 쓸 일이 없어 내버려 두고 있었는데, 섬네일의 분필을 보자마자 받았던 그 분필이 생각났다. 찾아서 비교해 보니 같은 제품이었다!



하교로모 분필 정면, 후면, 상면 사진

분필을 써보고 싶어 칠판 대용으로 쓸 만한 것을 찾아봤는데, 책상이 괜찮겠다 싶었다.



신나서 닉네임도 적어보고, 경육면체도 그려봤다. 경육면체의 보이지 않는 모서리를 점선으로 그려봤는데, 나름 잘 그려졌다. 점선을 그릴 때는 분필을 칠판 역할을 할 면과 수직으로 놓고, 분필 끝을 엄지와 검지로 잡은 뒤에 살짝 힘을 주고 그어주면 된다.

사진에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, 하고로모 로고가 새겨진 부분이 좀 더 색이 진한 것이 코팅이 된 듯했다. 그래서 로고 쪽으로 분필을 잡으면 손에 분필이 묻어나지 않아 좋았다. 필기감은 확실히 부드러웠고, 책상은 물티슈로 닦아 주니 분필 자국이 깔끔하게 지워졌다. 예전에 딱딱한 분필을 썼을 때 많이 깨뜨리고, 아무리 지워도 분필 자국이 남아 있어 답답했던 기억이 난다.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좋다는 것이 느껴졌다. 왜 일반 분필보다 훨씬 비싼 값을 받는 명품 분필인지 알 것 같았다. 칠판에도 써보고 싶은데, 그건 기회가 된다면...!

하고로모는 일본에서 3대까지 가업으로 이어져 내려온 분필 회사인데, 한국에서 인수해서 현재는 한국 기업이다. 섬네일 영상의 링크는 아래에!

<https://youtu.be/T4O4DhXAjsE>